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고조선역사 연구가 “고조선시대에 사용된 다른 외당 있다” 주장

승리제단에서는 구세주 조희성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1981년부터 한민족의 뿌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며, 고조선은 단지과가 BC1000년경 세운 최초의 고대국가라는 것을 계속 밝혀왔다. 그 근거로 대동강변에서 발견된 외당에 기록된 문양(文樣)이 고대 히브리어이며, 우리 민족의 풍습과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이 수십 개 동일하

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말 속에 들어있는 히브리어를 찾아 우리가 알타이어를 사용하기 전에 히브리어를 썼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처럼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되는 유물이 있고, 문화사적으로도 인정되는 내용, 또한 언어학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온 우리말이 있는데도 역사학계에서는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史實)을

외면하고 있다. 역사학계와는 달리 승리제단의 이러한 주장을 오히려 인정하며, 새로운 관련 사실 및 유물을 제시하고 있는 고조선역사 연구가 박태선씨를 만나서 그의 주장을 들어왔다. 그는 “현재 학계에서 고구려시대 외당으로 인정되고 있는 연화문(蓮花文)수막새는 잘못이다. 그것은 고조선시대 사용된 근화문

(蓮花文)수막새”이며, 또한 “외당문화가 한사군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은 고조선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이 학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생각하여 그의 글을 몇 회에 걸쳐서 연재하기로 하였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편집자 주

고구려시대 “연화문(蓮花文)수막새가 아니라 근화문(蓮花文)수막새다”

고조선 건국시기 BC1000년경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국사 교과서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 내지 기원전 1500년경에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므로 고조선의 건국원년을 고고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20세기 말에 이웃 나라인 중국이 역사학자, 고고학자, 천문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 200명을 동원하여 ‘하상주 단대 공정(斷代工程)’을 시작했을 때, 중국의 학자들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동국통감에 고조선의 건국원년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국 최초의 국가 하(夏)나라의 건국연도를 기원전 2070년으로 설정하여 고조선보다 263년이나 뒤늦게 건국한 것으로 하였다. 이것은 고조선의 설립시기를 BC2333년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학계의 한반도 고조선 국가에 대한 관점은 “고조선은 한무제 당시 설립된 한사군(기원전 108년) 이전, 고

대한반도 북부국가의 명칭이며 단군조선 및 기자, 위만조선 3개 왕조를 포함하고 있다(바이두 백과 古朝鮮)”고 본다. 세계사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천 년의 역사를 존속한 예가 거의 없는데 승리제단의 조희성 구세주님이 “신라가 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한민족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도 중국의 한무제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까지 천 년 동안 역사를 간직했다”고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고조선의 건국원년을 기원전 1000년 전후로 추정해 보고, 이를 성경 상의 기록에 의해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겠다.

고조선의 근화문(蓮花文)수막새

기원전 1500년경 청동기 문화가 번성한 이집트에서 벽돌과 기와를 굽던 한민족이 한반도로 이주하여 기원전 1000년경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설립하였다. 그래서 평양 근교에서 출토되는 고대의 초기 외당은 처음부터 정교한 문양을 새긴 특징을 보인다. 지붕의 기와끝 끝에 사용되었던 기와를 ‘수막새’라고 하는데, 이 수막새는 기원전 1000년경 대동강변에서 도래인(渡來人) 한민족이 고조선을 세울 당시 최초로 창안한 외당(瓦當)이다. 기와집의 외당 문화는 고



박태선씨는 사진의 외당(경희대 중앙 박물관 소장)이 연화문수막새가 아니라 무궁화 꽃씨를 심는 고조선 사람들 문양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에서 중국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중국 최초의 외당이 서주 중기(西周 中期, BC 9세기중엽 ~ BC 771) 시대의 협서(陝西) 주원(周原) 유적지에서 소규모로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와의 사용은 대체로 한(漢)문화가 유입된 낙랑시대부터라고 추정하는 것이 오늘날 사학계의 통설인데 이는 평양 근교에서 출토되는 고대 외당에 새겨진 문양의 기원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원후 372년 소수림왕 때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외당에 새겨진 문양을 연꽃무늬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연화문(蓮花文)수막새’라고 통칭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 이전의 고조선 시대에 제작된 원시 수막새는 무궁화 꽃씨와 무궁화 잎사귀 등 무궁화와 관련된 것을 새긴 문양을 하고 있다. 고조선의 근화문(蓮花文)수막새는 무궁화 무늬를 알지 못한 삼국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연꽃무늬의 수막새로 와전(訛傳)되기도 하였으며, 백제와 신라의 중흥기에 연꽃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는 외당이 비로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고조선 수막새에 무궁화 문양을 새기게 된 동기를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고조선역사연구가 박태선

본부제단 5월 성적 시상, 저력의 4지역 3개월만에 또 1등



4지역 이영애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2016년 6월 7일 화요일 구역장회의에서는 본부제단의 2016년 5월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2016년 5월의 성적은 4지역이 2등 점수보다 2배의 점수로 1등을 차지하였다. 4지역의 월등한 성적에는 순종현금이 포함되어 있다. 5월 성적은 6지역과 2지역의 약진이 특징이다. 6지역이 윤금옥 승사의 감사헌금에 힘입어 2등을 차지하였고, 2지역이 안경미 권사의 감사헌금에 힘입어 3등을 차지하였다.

구역성적에는 1등에 58구역, 2등에 38구역, 3등에 45구역이 차지하였다. 개인 성적에서는 1등에 윤금옥 승사, 2등에는 신순이 권사와 안경미 권사가 공동 2등을 차지하였고 개인 3등에는 김두식 승사가 차지하였다.

윤봉수 회장은 “5월 성적에서 상을 받은 분들에게

구세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또한 오늘은 신임 구역장들이 처음으로 구역장 회의에 참석했는데 새 구역장에게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신임 구역장들은 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책임자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2등: 6지역(지역장: 김주호, 지회장: 석선자) 3등: 2지역(지역장: 강중태, 지회장: 김혜선)

- *구역 1등: 58구역(구역장: 윤금옥) 2등: 38구역(구역장: 김정순) 3등: 45구역(구역장: 신순이)

- *개인 1등: 윤금옥 승사 2등: 안경미 권사, 신순이 권사 3등: 김두식 승사*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84)
“나라는 의식이 죄의 본질”

영생을 얻을 자격자는 바로 나를 기신 하나님이다. 나라는 의식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가르쳐 주고 있다. 나만 제거하면 죄가 하나도 없다가 된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존심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요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고 따라해야 나라는 것이 죽는다. 이것이 나를 죽이는 비결이다.

자유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라 했다.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100% 복종하는 생활이 자유율법을 지키는 생활이다. 상대방을 리드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구도의 길

밀 빠진 독에 물붓기

영생은 구세주의 전유물이다. 구세주는 영생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한 구세주(막 12:29)라고 성경은 말한다.

승리제단 교인들은 모두 구세주가 되고자 한다. 누구 하나만 구세주이고 다른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과 배치된다. 성경은 오직 영생을 위한 것이며, 영생은 구세주가 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유사 이래 최초로 구세주가 되신 조희성 선생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을 강력히 갖게 된다.

그분의 성품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강한 결단력과 끝까지 해내고 미는 추진력이다. 한번 안 한다고 결심하거나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꼭 성취하였다. 더욱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마음의 싸움에서, 예컨대 저절로 나오는 과거의 기억이나 일들을 뒤돌아보는 것이 죄이므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결심하고는 기억이 그것을 해내신 것은 최고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희생정신이다.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면 자신을 불살라 그 뜻을 이루는 데에 한 치도 두려움이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초

개와 같이 던지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 희생의 발자취로 전국에 7개의 중고등학교와 다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다.

이러한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희생정신을 본받아야 우리도 구세주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안목이다. 조희성 선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받은 은혜를 쏟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다. 죄인을 만나면 그 귀한 은혜가 쏟아지고, 죄를 지은 은혜를 쏟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심조심 살피며 행동하셨던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일주일 내내 죄를 짓다가 일요일에 하나님께 나가서 사함을 받고, 또 죄를 짓고 사함을 받는 그런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신앙이다. 우리 승리제단 교인들도 기독교인들처럼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는 금방 쏟아버리고서는 다시 또 받으면 되니까 하면서 안일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채울 수 없다. 보광하신 이 시대는 은혜 받기가 무척 어려우니 은혜 쏟지 않는 일관된 생활이 절실한 때이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이번부터 보광절에 묘소에배는 보지 않고, 본에배만 붙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제단은 사망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안 죽는 종교입니다.



본지 지만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힘(苦海)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힘의 바다를 오늘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힘을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제단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시간 안내			
월-토요일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지하철 1호선 역곡 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우1467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